3인 3색으로 만나는 라벨의 춤곡 '볼레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1~22일 국립현대무용단이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재해석한 '쓰리 볼레로'를 초청해 공연한다. 김보람이 안무한 '철저하게 처절하게'. 〈ACC 제공〉

국립현대무용단 '쓰리 볼레로'
김용걸·김설진·김보람 안무
21~22일 문화전당 극장1

모리스 라벨의 춤곡 '볼레로'를 안무가 3인의 무대로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과 22일 오후 3시 국립현대무용단의 '쓰리(3) 볼레로'를 문화전당 예술극장1로 초청해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현 무용계를 대표하는 세 명의 안무가 김용걸, 김설진, 김보람의 무대로 채워진다. 볼레로는 1928년 유명 무용수였던 이다 루빈슈타인의 의뢰를 받아 완성됐다. 스페인의 민속 춤곡의 하나인 '볼레로'를 가져와 이름을 붙인 오케스트라 작품이다.

김용걸이 안무를 맡은 '볼레로'에는 광주시립발레단이 출연해 일사불란한 군무를 선보인다. 원곡의 네 가지 반복된 리듬과 클래식 발레 동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작을 조합했다. 움직임의 배열과 재구성의 조화로움이 극대화된 군무는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여기에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웅장함을 더한다.

김용걸은 국립발레단을 거쳐 세계 최정상급의 발레단인 파리오페라발레단에 한국인 최초로 입단해 솔리스트로 활약하면서 한국발레를 대중적으로 부흥시켰다.

김설진의 '볼레로 만들기'는 볼레로의 해체를 시도한다. 그는 기존 볼레로로부터 형태와 시간의 분석을 떠난 이탈의 질감을 살렸다. 무너진 볼레로를 다시 쌓기 위해 일상에서 수집한 음악을 볼레로 리듬으로 확장하는 형식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벨기에 피핑톰 무용단에서 활동하는 김설진은 엠넷 '댄싱9' 시즌2에서 우승하면서 폭 넓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예술감독이자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람은 '철저하게 처절하게'라는 이름을 붙인 무대를 올린다.

그는 볼레로의 선율과 리듬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가진 '표현의 기원'에 접근한다. 편곡을 맡은 박용빈은 소규모 앙상블로 볼레로를 재해석해 새로운 음색의 가능성을 확장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옛 것에 대한 향수, 세태 풍자 등 담아

교장 출신 김용하 시인 신작 '소소한 삶의 향기' 펴내

"문학은 자연과 사물을 관조하고 사색하여, 삶의 철학과 버무려 얻은 포만감을 시원하게 내뿜는 배출작용이다. 소소한 삶속에서 생기는 짙은 감흥과 향기를 언어로 조탁하면서 느끼는 자기만족이다."

광주고 교장과 광주시인협회장을 역임했던 김용하 시인이 신작 시집 '소소한 삶의 향기'를 펴냈다.

모두 100여 편의 시가 실린 작품집은 고향과 옛 것에 대한 향수, 세태에 대한 풍자, 답사와 여행 관련 소재가 주를 이룬다.

다양한 소재는 평소 시인의 관조적이며 풍류적인 시각, 유머 감각에서 비롯됐다.

시집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원초적 삶을 위하여', '세월에 기대어 바라보네', '숙명으로 만난 사연들', '미처 다 그리지 못한 자화상', '이루지 못해 더 아릅답다', '새로운 날들에 대한 합창' 등이다.

해설을 쓴 노창수 시인은 "김용하 시인은 '겸손'을 이용하는 방법, 대화에 여백을 집어넣는 법을 알고 있으므로 시에서도 관조의 시심을 살려냈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내일 추석 특집 공연

봉선동 귀일민들레집

노래로 이웃사랑을 전하는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사진〉이 추석을 앞둔 18일 특집 공연을 연다.

지난 1993년 결성해 올해 창단 26주년을 맞은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은 매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공연을 열고 있다.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교사, 회사원, 주부 등 시민 90여 명이 공연으로 온정을 전하고 있다. 노래봉사단은 523회에 걸친 공연을 통해 지금까지 9억 5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귀일민들레집을 찾아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흥겨운 퓨전난타로 문을 연 뒤 성민하, 최진필, 장혜진씨 등의 트로트 무대가 이어진다.

김산옥 명창의 판소리로 흥을 돋우고 신명풍물소리단이 퓨전장구 무대를 펼친다. J&C 범지율 무용단이 열정적인 밸리댄스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김효중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장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집공연을 마련했다"며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앙상블 마주얼 '천상의 현 울림'

월요콘서트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는 1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앙상블 마주얼〈사진〉의 '천상의 현 울림'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비발디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과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구성됐다. 비발디의 협주곡을 통해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비슷한 듯 다른 음색을 감상하고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에서는 현악 앙상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앙상블 마주얼은 '얼(정신)이 마주한다'는 의미로 연주자와 관객이 마주하며 공감과 소통을 이루는 단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을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는 김도연, 김용상, 김재은, 노시온, 문호정, 양은혜, 이성애, 한인지, 황란아(이상 바이올린), 김주영, 안예주, 정호균(이상 비올라), 이지현, 김민수, 박효은, 정아름(이상 첼로), 류수경(더블베이스), 객원단원으로 김주희(비올라), 김정은(피아노) 등이 출연한다.

입장료 초대(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

중장년 아마추어가 꾸미는 무대

금호 시니어 콘서트 17·18일 유·스퀘어 문화관

만 40세 이상의 아마추어 연주자가 무대에 오르는 제3회 '금호 시니어 콘서트'가 18일까지 이틀 간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첫날 무대는 소프라노 김문희가 신귀복의 노래 '얼굴', 이수인의 '내 맘의 강물'로 문을 열고 바리톤 이귀재는 '청산은 깊어 좋아라', 소프라노 김지현은 '고풍의상' 등을 노래한다. 최우리의 반주와 함께 소리 빛 중창단은 '아름다운 섬진강', '사랑의 노래' 등으로 화음을 맞춘다. '어울림 한소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 송'으로 흥겹게 무대를 마무리한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더 샾 앙상블'이 하이든의 '런던 트리오 1악장'과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주제곡 '인생의 회전목마'로 공연을 시작한다. 소프라노 유옥순이 '커티스'의 '물망초', 바리톤 임동윤이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 무도회' 중 '영혼을 더럽힌 것은 당신' 등으로 실력을 발휘

NCC 앙상블

한다. 마지막으로 NCC 앙상블이 파헬벨의 '캐논'과 로블랜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9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이름 붙여 무대의 끝을 맺는다.

문의 062-360-84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 소설가 최은영 선정

서점인들이 뽑은 올해의 작가에 소설가 최은영(34)이 선정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서점의 날(11월 11일)을 앞두고 진행한 제2회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작가'에서 최은영 소설가가 올해의 작가에 뽑혔다고 밝혔다.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는 문학·소설 분야에 공지영 작가의 '해리', 아동·청소년 분야에 김중미 작가의 '꽃섬 이야기', 경제·경영 분야에 대도서관의 '유튜브의 神', 자기계발·역사 분야에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 선정됐다. 기타 분야에는 유현준의 '어디서 살 것인가'가 뽑혔다.

이번 투표는 전국 서점인들에게 추천을 받아 1차 후보를 선정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작가와 작품을 뽑았다.

최은영 작가는 첫 소설집 '쇼코의 미소'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 발간한 두 번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도 평단과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